■ 민족문화연구 제82호(2019.02.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67-90.
http://doi.org/10.17948/kcs.2019..82.67

【특집: 조선 후기 개인 담론과 자술 문학】

조선 후기 반역적 개인의 형상*
—이언진의 호동거실—

박동욱(朴東昱)**

목 차

1. 서론
2. 요동치는 내면과 구원의 시도—자신의 방
3. 머물 수도 떠날 수도 없는 공간—저잣거리
4. 새로운 시로 세상과 만나다—다시 골목길에서
5. 결론

국문초록

그는 홀로 先覺한 자로서 세계에 대한 비극적인 절망을 말한다. 그는 자신의 방에 자신을 가두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분노와 절망을 누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참선을 하며 鼻觀, 靜坐의 방법을 사용해 보고, 여러 종교에서 구원의 방법을 찾았지만 그나마 불교가 약간의 위안으로 다가왔을 뿐, 내면의 울분을 다 털어내지는 못했다. 가족과 신분적 한계, 앓고 있던 병 등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자화상을 스스로 그렸다가 지우는 일뿐이었다. 자신의 능력에 비례해 절망의 깊이는 커져만 갔다.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8년도).
** 한양대 인문과학대 부교수.

저잣거리로 상징되는 공간은 그에게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곳이다. 그곳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모든 욕망의 추악한 면을 그리며 매서운 어조로 질타했다. 벼슬아치와 지식인은 그 중심에 있다. 그들은 그러한 공간의 주인공이며 이언진은 거기에서 배제된 인물이다. 그들은 죽어서도 기억되었지만 이언진은 살아서도 기억되지 못 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自足과 隱居, 遊覽이었다. 그들과 공간을 달리함으로써 스스로 自儆를 간직했다.

그는 새로운 인간상을 만들기에 골몰했다. 張獸醫와 張姓翁, 수호전의 인물상, 고대의 협객 등을 결합하여 새롭게 이상적인 인간상을 창조했다. 기존의 유가 질서 속에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진솔한 인간애를 보여주는 인물들이었다. 사회를 향한 모든 출구는 막혀 있었다. 그는 골목길을 통해 저잣거리로 나와 당당한 자신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다. 시를 통해서 천년 뒤에도 썩지 않는 책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그가 바라는 일이다.

물론 그의 고민이 대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 개인의 구원에 중심이 있었지, 세상을 바꾸는 데에는 커다란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중인으로서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반권위, 체재 비판, 본질과 실제 추구, 창조적 시정신이 폄하될 수는 없다.

주제어: 이언진, 호동거실, 반역, 시장, 水滸傳.

1. 서론

이언진은 어떤 시인보다 난해한 시를 남겼다. 이러한 점은 특히「호동거실」연작시에서 두드러지는데, 스물 넉 자의 짧은 시 속에 제시된 어떤 장면만으로는 그 의미를 획정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 편마다 副題가 붙어있지 않아서 원저자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들고, 주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방법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어휘와 구법에서 이전까지 없었던 표현법을 사용하는 것도 난해함에 한몫한다. 게다가 주제와 내용의 편폭까지 넓고 다양하다. 때로는 일상적인 생활을 직설적으로 읊었고, 때로는 권력과 사회상을 비유적으로 읊기도 하며, 유가적 삶을 노래하는가 하면 萬象의 寂滅을 말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각 작품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도 늘어났지만, 오역의 가능성 또한 그만큼 증가됐

다. 그의 시에 대한 의미를 확정하면 할수록 오히려 정확한 독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해석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확정된 의미를 유보하는 것도 杜撰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언진에 대한 해석과 평가 또한 연구자마다 엇갈리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그의 시를 일부분 혹은 상당 부분 번역했지만 각자 그 내용도 다를뿐더러 오역도 많은 편이다. 박희병은 그를 '신분 차별이 당연시된 조선 시대에 인간의 자유와 평등, 다원적 가치와 인간의 자율성을 논한 선구적 인물'이라고 평가한 반면, 김명호는 '이언진의 문학이 과대평가됐다'고 했다.[1] 정치학을 전공한 김영민은 이러한 논쟁에 가담하여 '요절한 조선 후기 역관 이언진은 저항 시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렇듯 한 시인을 놓고서 연구자 간에도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어떤 시는 그 속에 제시된 공간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불분명하고,[2] 시의 전반부와 후반부와의 격절이 심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또 '明淸 문집을 읽은 후 시로 쓴 독후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독서의 이력이 깊이 침윤되어 있다. 이미 이언진과 명청 문학과의 관련 양상에 대한 연구가 나와 있지만,[3] 어떤 명청 문집을 읽고 착상을 했는지 특정하지 않고는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 과정은 필수 조건이다.

그의 시에서는 聖과 俗, 육신과 정신, 저잣거리와 서재, 현실과 초월, 출사와 은거, 저항과 순응 등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한다. 현실적인 불만족이 있다면 체재에 더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아예 그 체재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체재에 완전히 위반하여 다른 길을 모색하는 방법이 있다. 그는 이러한 경계선에서 고뇌했다. 저항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처럼 분노와 절망을 격정적으로 토로한 시편으로 견고한 체재에 저항한 인

1) 김명호, 「李彦瑱과 『虞裳傳』」, 『한국문화』 제70호,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5.

2) 李彦瑱, 「衙衕居室」, 『松穆館燼餘稿』. "[10] 市裡別起謎諢, 不辨漢語倭語. 米和沙銀夾銅, 全瞞過村男女."; "[32] 穿個鞣戴箇笠, 閒走兩瓦三舍. 一藝無成吾恥, 彈棊蹴毬皆可."; "[34] 五都市一句欄, 戲千般鬧千般. 巫婆撒豆是佛, 里童騎竹亦官."; "[63] 街頭汗流如漿, 箇箇扇不離手. 大石橋獅子項, 看水痕一夥走." 이하 「衙衕居室」의 인용표기는 해당 시의 번호와 원문만을 밝힌다.

3) 김동준, 「이언진 한시의 실험성과 「동호거실」」, 『한국한문학연구』, 제39집, 한국한문학회, 2007; 이동순, 「이언진 문학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0.

물도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언진의 호동거실을 중심으로 그가 보여준 한 개인의 반역적 모습을 살펴보려 한다.

2. 요동치는 내면과 구원의 시도—자신의 방

그의 집은 초라했다. 깊은 골목 안에 위치해 있었는데 지붕은 낮았고 서재나 방안에 있어야 할 붓과 벼루, 책과 두루마리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부뚜막과 곡식 사이에 섞여 있었다.[4] 그는 자신의 방을 가지고 싶어했다. 미장이를 불러 방 하나를 만들어 윗목에는 가부좌 트는 자리를 만들고 다탁도 놓고 책상도 두고 싶다는 희망을 담았다. 그 꿈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5] 그는 자의든 타의든 방 안에 幽閉되었다.

[6]
마음은 언제나 깨어 있고 깨어 있고 깨어 있어야 하고
입은 언제나 말없이 말없이 말없이 있어야 하네.
일체의 고뇌를 버리고
무한한 즐거움 얻으리.

心常要惺惺惺, 口常要默默默.
去一切之苦惱, 得無量之快樂.

참선은 암울한 현실과 어지러운 정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실제 상당히 진전되었던 병의 치료를 위한 목적을 겸하기도 했다. 참선을 할 때에는 燒香[6]과 鼻觀[7], 靜坐의 방법을 주로 사용했으며, 면벽한 스님처럼 대립과 소란을 이기려는 고요의 힘을 묘사하기도 했다.[8] 참선은 상당한 경지에 이르러 여러 신비한 현상을 경험했다. 밤낮으로 참선을 하자 등불인지 佛光인지 알 수 없는 백 줄기 옥무지개가 창문으로 비추기도 하

4) "[73] 巷深如入甕裏, 屋低不及帽簷. 筆硯雜置烟爨, 書卷夾註米鹽."
5) "[66] 快呼來泥水匠, 爲我造一間房. 上頭置跏趺所, 安茶竈安書牀."
6) "[41] 燒香祓秕穅氣, 讀書破鬪鬨聲. 譽無根毁無蒂, 銷不得浪沸澎."
7) "[4] 來者牛去者馬, 溺于塗糞于市. 先生鼻觀淸淨, 床頭焚香一穗."
8) "[8] 車馬丁丁當當, 婦女叨叨絮絮. 我則如面墻僧, 一生煉神鬧處."

고[9], 눈을 감고 있으면 떠오르는 광경이 아주 많았으니, 불빛 같기도 하고 금빛 같기도 한 천만 개의 부처가 모두 나타나기도 했다.[10] 위의 시에서는 마음과 입으로 해야 할 일을 서술한 뒤에 일체의 고뇌에서 벗어나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말하고 있다. 그가 얼마나 참선에 집중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39]
좁디좁은 방에서 참선에 정진하나
전향(篆香)이 반쯤 타면 가부좌 튼 채 잠을 자네.
'어리석은 신선'도 '학식 있는 귀신'도 되지 못했으니
스스로 '산성'[구속 없는 지식인]이나 '야선'[덜 떨어진 스님]이라 부르네.

十笏房精進定, 半篆香吉祥眠.
不做頑仙才鬼, 自稱散聖野禪.

참선도 구원이 되지는 못했다. 참선이 깊이 있는 깨달음으로 연결되지 않고 잠에 빠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제3구에서 '어리석은 신선[頑仙]'도 아니고 '학식 있는 귀신[才鬼]'도 아니라고 했으니, 이 두 개념은 남조 양나라의 도홍경이 양 무제에게 한 말 중 "매번 '학식 있는 귀신'이 되는 것이 '어리석은 신선'이 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每以爲得作才鬼, 亦當勝於頑仙.]"라는 부분에서 나온 것이다. 곧 방외(方外, 도사나 승려)에서 서툴기보다는 방내(方內, 세속 세계)에서 뛰어난 것이 낫다는 뜻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언진은 이 두 가지 모두 자신이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로 보았다. 곧 학문이나 깨달음 무엇 하나 커다란 성취를 얻지 못했다는 자기 고백이다. 그의 개인적 구원에 대한 염원은 다양한 시도로 점철된다. 유불선에 모두 관심이 있었지만 유교에 대해서는 피로함을 토로했고[11], 도교[12]나 불교[13]에 대한 시들은 종

9) "[92] 晝裡參夜裏參, 拈一瓣心頭香. 窓間玉虹百道, 不辨燈光佛光."
10) "[101] 閉眼中光景多, 如火光如金光. 千億佛畢來現, 此張紙火無妨."
11) "[132] 天下本自無事, 文人弄出事來. 焚詩書大眼力, 罪之首功之魁."
12) "[53] 騎青牛跨白馬, 大逍遙自在人. 佛氏兼具千手, 老氏猶患一身."; "[54] 陶先生萬卷書, 孫先生數丸藥. 陳先生五龍睡, 李先生都乞得."; "[55] 三百篇道性情, 難化那一世人. 五千言無丹藥, 亦保箇自家身."
13) [17], [94], [99], [100], [101], [102], [105], [106], [108], [109], [110], [116], [117],

교적인 측면 보다는 자신의 구원을 위한 내적 투쟁의 산물이었다. 현실의 견고한 벽을 마주했을 때 이러한 시도는 매우 유효하다. 그가 보여 주는 개인적 구원의 시도야말로 근대적 정신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에 현재에도 큰 울림을 준다. 그는 老莊에는 특별히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았고 불교에서 특히 많은 계발을 얻었다. 불교와 도교에 있어서도 종교적 체험을 통한 깨달음 이외에 대장경이나 道藏에 대한 지식을 중요시 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14]

[35]
머물면 낮은 집에 자주 머리 부딪쳐 괴롭지만
떠돌면 스님처럼 행각하는 게 좋으리라
아내는 거미같고 자식은 누에같아
온 몸을 온통 칭칭 감싸는도다.

居常苦屋打頭, 遊常愛僧行脚.
妻如蛛子如蠶, 渾身都被粘縛.

실제적으로 그를 괴롭힌 문제들은 무엇이었을까? 家長의 무게, 신분의 한계, 악화되는 질병, 예민한 자의식, 실존적인 고민 등을 꼽을 수 있다. 그중에 이언진은 가장으로서의 한계와 절망을 자주 토로했다. 가족이란, 삶을 살 희망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삶을 버겁게 할 負荷가 되기도 한다. 결혼 초기에 소박한 일상의 행복을 끼적이기도 하고,[15] 아이를 낳은 뒤의 걱정과 부담감을 담담히 기록했으며,[16] 인지 장애가 있는 아이가 무탈하게 자라기를 기원하기도 했다.[17] 무엇보다도 아내에 대해서는 사랑과 미안함이 남달라 해와 달과 등잔 빛만 제하고서는 아내만 바라보았다고 토로할 정도였지만,[18]

---

[122], [124], [149], [158], [161], [162].

14) "[128] 西方有文字海, 上天有圖書府. 不識丁無玉帝, 不識丁無佛祖."

15) "[9] 出辛辛遊苦苦, 居喜喜處歡歡. 形體不老不弱, 眷屬無飢無寒."

16) "[42] 兒墮地便啼哭, 阿爸悶阿婆惱. 雞生啄不待乳, 犢生走不待抱."

17) "[24] 바보야 괜찮니? 바보야 괜찮니? 아이를 안고서는 아침마다 빈다. 주리면 밥 먹고 배부르면 놀렴. 동쪽 이웃의 갑돌이와 을돌이처럼.[癡呆好癡呆好, 抱兒子朝朝祝. 飢但食飽但嬉, 如東隣某子甲.]" 이 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이동순은 신분 차별과 관련지어 재주가 있어 봤자 쓰일 데가 없으니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게 낫다고 보았고, 박희병은 이 시의 바보 예찬은 당시 일반적으로 영위되던 生의 방식, 당시의 일반적 세계상에 대한 저항과 비판으로 보았다.

병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생활도 여의치 않았고 치료의 목적으로 거처를 따로 해야 했다.[19] 그는 자식을 자랑하고 마누라를 무서워할 줄만 안다고 토로하기도 한다.[20] 그의 가족에 대한 부채감은 가난이 한 몫을 차지했으니, 이웃집에서 고기를 얻어먹는 이야기는 맹자의 乞墦을 연상케 한다.[21] 그렇지만 현실을 타개할 만큼 세태의 변화에 능수능란하게 대응하는 인물도 아니었음을 그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22]

[93]
어쩌면 半僧半俗의 和尙은
半賢半愚의 선비와 같지 않겠는가?
높은 뜻은 천하 어디든 자유자재로 다니지만
세상에 이름 없는 미미한 존재이니까.

難道聖凡和尙, 未免癡黠先生.
是彌天大自在, 是四海小無名.

彌天은 뜻이 아주 高遠함을 비유한 말이다. 晉나라 때 고승 道安이 荊州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文章家인 習鑿齒와 서로 만났을 적에, 도안이 "나는 미천석도안(彌天釋道安)이요."라고 하자, 습착치는 "나는 사해 습착치(四海習鑿齒)요."라고 하면서, 서로 장난을 친 고사가 있다. 『晉書』 卷80 「習鑿齒列傳」에 나오는 말이다. 석도안은 고승이지만 부견에 잡혀가 그 아래에서 일했으니 반승반속의 인물이고, 습착치는 유명한 역사가이지만 또 술 잘 마시기로 유명했으니 半賢半愚의 인물이었다.

이 시는 자신의 자화상과 같다. 자신은 석도안과 같이 높은 뜻이 있고. 습착치처럼 학식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는 이름이 없는 존재라는 말이다. 능력이 있는 만큼 현실에 쓰이지 못하는 절망감이 자조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

18) "[72] 城一環步不廣, 瓦一壓頭長低. 只除日月燈光, 眼睜睜看箇妻."
19) "[161] 名場險似戰場, 佛國眞箇樂國. 戒色醫戒獨眠, 量貧妻習中食."
20) "[142] 握籌不知縱橫, 擧秤不知高低. 不能樂聖避賢, 唯能譽兒畏妻."
21) "[81] 貧家盤飧寒儉, 一碟配鹽幽菽. 今朝妻子大饗, 西隣祭送牛肉."
22) "[43] 世情千世態萬, 大海裏數魚鰕. 先生心細如髮, 知市上人面麻."; "[44] 人百口口百舌, 精細伶俐畢聚. 吾腌臢我鬼黮黭, 喉裡飯亦騙取."

의 시에는 여러 인물에 자신을 빗대어 표현한 부분이 많이 등장한다.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절망감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규정하는 행위에 집착했다. 李白, 李泌, 李鐵拐에 자신을 빗대어 대시인이면서 벼슬 없이 지냈으며, 수도하는 사람이라 했다.[23] 또 다른 시에서는 승려와 산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서 속인처럼 완전히 세상에 들어가서 經世하거나, 승려나 산인처럼 경세에 완전히 초월해야만 자신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적극적으로 세상사에 참여할 수도, 그렇다고 완전히 세상사로부터 떠날 수도 없다는 점에 이언진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24] 자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존재 증명을 하고 있던 셈이다. 자신은 자신만을 벗할 뿐 남을 벗하지 않는다[我友我不友人]는 절박한 탄식과 맥을 같이 한다.

자신의 실력에 어울리는 현실적인 보상을 받게 되지 못하자 그는 스스로를 규정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거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대단한 수준의 인물과의 동일화(이백, 이필, 이철괴, 왕유), 둘째는 한 분야나 측면에 고정되지 않고 분열적으로 존재한다는 점, 셋째는 새로운 방식이나 지향을 선보이는 것이다. 여러 모습으로 규정되는 만큼 내적으로는 고민과 절망이 다양해졌다.

"[120] 옷은 유학자의 복장이지만 모습은 승려, 성씨는 곧 도덕천존 노자와 같은 이씨라네. 한 방면만으로 이름을 지을 수 없으니 유불선 삼교의 큰 제자라네."[25]라고 했다. 결국은 유자일 수도 도인일 수도 승려일 수도 없었으며 온전히 시인일 수도 화가일 수도 없었다. "[118] 얼굴은 석탄 같고 뼈는 땔나무 같아, 마치 거친 세월 지나온 木居士 같네. 감각이라곤 조금도 없으니, 나무숲에 없어서는 안 되리라.[面如煤骨如柴, 如風雨木居士. 半點兒沒靈感, 不可少業林裡.]"라면서 자신을 희화화하긴 했지만 혹독한 자기 추구와 함께 세상사에 담담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의 모습을 그린 시 중에 가장 잘 그려진 작품을 살펴보자. "[125] 맹교의 가난과 가도의 수척함을 배우고, 불

23) "[111] 供奉白鄴侯泌, 合鐵拐爲滄起. 古詩人古仙人, 古山人皆姓李."
24) "[112] 面黃者類古佛, 衣白者類山人. 能經世能出世, 始能生身外身."
25) "[120] 儒其衣僧其相, 其姓則上淸李. 要不可一端名, 三教中大弟子."

교는 周顒처럼 아내 있고 何胤처럼 고기를 먹네. 사람들은 비석 같은 흰 내 얼굴만 볼 뿐, 가슴속에 술로 풀어야 하는 울결이 있는 줄 모르네.[學詩郊寒島瘦, 學佛周妻何肉. 但見貌如白碑, 不知胸有酳國.]" 시는 맹교나 가도처럼 풍족한 정서가 결핍되었고, 불교를 믿는다지만 용맹 정진할 수는 없었으며, 얼굴은 창백했고 가슴속은 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우울함이 있었다.

3. 머물 수도 떠날 수도 없는 공간—저잣거리

그는 고관대작에 오르는 것이 재능이나 운명과 상관없이 기회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물론 그 자신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26] 그러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높은 손님 앞에서 희극 배우가 되어 가면을 쓰고 거짓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다.[27] 삶이란 비극에 희극 배우가 되어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오지 않는 눈물을 짜내서 사람들과 세상을 한바탕 속이겠다는 다짐은 그가 품었던 절망의 깊이를 가늠케 한다.

[10]
시장에서 사기치지 마소
중국말인지 왜말인지 모르겠는데
쌀에 모래 섞고 은 사이에 동 끼어
촌 사람들 완전 속여먹구만.

市裡別起謎諢, 不辨漢語倭語.
米和沙銀夾銅, 全瞞過村男女.

이 시는 모리배가 판치는 시장을 그려 사회상을 질타하고 있다. 저잣거리는 온갖 욕망이 충돌하는 곳이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일 따위는 다반사로 일어난다. 시장이란 공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언진은 이 세상을 조그마한 이익에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는 시장으로 보고, 또 시장은 한정된 물건을 두고 서로 많이 갖겠다고 다투는 밥상에 빗댔다.[28] 僧

26) "[30] 時來三台八座, 管甚才也命也. 道在行商市儈, 任他譽者毁者."
27) "[31] 人情百煖百寒, 身世多苦多惱. 尊客前爲鮑老, 假頭面假啼哭."

多粥少의 상황에서 다툼은 예기된 것이다. 싫든 좋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시장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지만, 그는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

[23]
烏犀帶는 犯緂牌
사람을 묶고 있지만 사람은 그걸 모르네.
이 물건 그대가 꼭 가지고 싶은가
그럼 왼손으로 [범요패로] 목을 찌르고 오른손으로 쥐게나.

烏犀帶犯緂牌, 繫着人人不悟.
此物君必欲之, 左手刎右手取.

그에게 벼슬아치들이 차는 무소의 뿔로 장식된 혁대는 포승줄이나 다름없으니, 결국은 범요패 곧 범죄자의 죄상을 공포하는 패를 매다는 형국이 된다. 그러니 벼슬에 오르려거든 범요패로 자신의 목을 찌르고 시작할 것이니 어차피 종국에는 그런 운명이 되기 때문이다.

그의 시에는 관리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진다. 조선시대 가장 큰 존재 증명은 관료가 되는 것이다. 致仕의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을 때에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불가능한 치사를 끝없이 지향하며 본인의 삶을 저주하거나, 아예 치사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는 후자의 방법을 택해 정신의 자유를 얻으려 했다.

관리는 시장의 이익을 탐하는 장사치와 다름없는 존재로 보았다. "[13] 한 주발 밥을 먹고 배부르면 쉬다 가는, 한 길에서 머리를 감싸 안고 잠을 자네. 떠는 거지 아이가 승지를 憐憫함은 눈 내리는 새벽마다 상감 謁見해야 하니.[一碗飯飽則休, 大道傍抱頭眠. 寒乞兒憐承旨, 雪曉裏每朝天.]"라고 하여 거지 아이가 도리어 승지를 가련하게 여기는 상황을 그려내어 관료 사회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致仕란 범을 안은 채 자고 뱀을 소매에 넣고 다니는 것처럼 위태로운 일이어서 치사를 포기하는 것이 화가 적고 복이 많다고까지 極言했다.[29] 이런 비판의 칼날은 하급 관리에 대해서

28) "[56] 一器飯兩手匙, 飢飽猶或不均. 市爭鬨勢必至, 半鈔錢千億人."

도 예외는 아니었다. 말에는 남을 부리는 어투가 있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파여 있으니 비루한 사령이 제격이라 했다.30)

[146]
어디서 文墨匠을 데려와
그 사람의 얼굴에다 죄목을 쓸까.
'거짓 문장과 가짜 학문'이라 써서
세상을 속이고 명예를 훔친 본보기로 삼아야 하리.

安所得文墨匠, 記罪過人面上.
以爲假文僞學, 欺世盜名榜樣.

그의 비판은 비단 관리에 그치지 않았고, 지식인에까지 확대된다. 명실상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장이나 학문으로 명성을 떨치는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얼굴에다 '假文僞學'이란 넉 자를 먹으로 새겨 세상 사람들에게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다른 시에서 점쟁이와 승려의 대중을 속이는 작태를 신랄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31) 이것은 곡학아세하는 지식인에 대한 비판에 다름 아니다. 그는 일반적인 지식인에 대해서도 관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135] 도인의 마음은 협소하여, 온갖 생각이 감옥을 만드네. 새벽에 일어나 책 들고 앉아 이유도 없이 웃다가 또 우네.[道人心腸褊窄, 萬想鍛鍊成獄. 淸曉卷書起坐, 無事忽笑忽哭.]" 여기서 도인은 도교의 도사라는 狹義를 가지고 있지 않다. 처세에 초연하고 식견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책 속에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一喜一悲하는 지식인의 협소한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비난의 칼날은 거침없이 군주까지 향한다. "[145] 행적이 의협으로 넘쳤던 규염객, 행동이 군신 간에 거침없던 '양 코' 위징. '수염 군주' 당 태종과 같은 밝은 임금을 만나, 기이한 이름을 이루고 기이한 공을 세웠다.[跡太俠虯髯客, 容太慢羊鼻翁. 遇明主如髭聖, 成奇名立奇功.]"라고 하여 당태종으로

29) "[15] 苦呼喚不回頭, 抱虎眠袖蛇走. 勇退凶少吉多, 甚麼問數問繇."
30) "[141] 話間帶些婆氣, 臉上都是餓文. 冗司若在仙府, 合置這般猥員."
31) "[7] 說一句兩句易, 伏犧以卦見賣. 念千聲萬聲經, 釋迦爲齋行乞."

인해 공적이 드러났던 인물들을 제시하여 예찬하면서, 실제로는 당대에 뛰어난 군주가 나타나지 않아 훌륭한 성취를 보이는 신하가 부재한다는 속뜻을 담았다. 매우 불온하며 반역의 기운까지 내포하고 있다.

[14]
수염·머리 허옇게 센 늙은 귀인이
이불 쓰고 누웠다가 이불 끼고 앉았다 하면서,
오세 손자까지의 생계를 헤아려 보니
밭이 넓지도 않고 집이 크지도 않네.

白髭髮老貴人, 擁被臥擁被坐.
五世孫計生計, 田不廣屋不大.

이 시는 邵雍이 5대 손자 대까지 점괘를 뽑아 보고 대들보에 깔려 죽을 형조 상서의 운수를 알아냈다는 데에서 나온 것으로 기득권 인사에 대한 조롱을 깔고 있다. 관리나 지식인들이 온갖 虛名과 虛僞로 당대의 권력과 권세를 구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왜곡된 기억으로 영원히 기억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담았다.

다음의 시들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134] 진실로 타락한 도인이었고, 진실로 더러운 선생이었다면, 설사 효성스런 아들과 손자라 할지라도, 문성이란 거짓 시호는 받지 말아야 하리.[眞箇尷尬道人, 眞箇腌臢先生. 雖有順子慈孫, 不許假謚文成.]"라고 하여 타락하고 더러운 일들을 일삼아도 여전히 조정에서 내린 謚號를 받는 현실을 개탄한다. 또, "[139] 재주가 뛰어나 일찍 벼슬을 얻고, 박학하여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만이, 묘비나 열전에 들어가, 한 글자도 거짓 없는 사실이 되리라.[高才早得官啣, 博學能知市價. 可入墓表列傳, 一字是實無假.]"라고 하여 역설적으로 무능하고 무식한 사람이 기록에 남는 현실에 대해 울분을 토해낸다. 여기에는 자신의 초라한 삶은 기억조차 없이 사라져서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슬픔도 함께 깔려 있는 셈이다. 이언진은 옥황상제와도 거지와도 차별 없이 어울릴 수 있다는 소동파의 말을 통해 이러한 불평등의 구조를 깨고 싶다는 바람을 담기도 했다.[32]

[103]
꼭 울단월에 태어날 필요 없으니
절로 몸에 걸치는 옷이 있다네.
꼭 점성국에 살 필요 없으니
오시에 일어나고 자시에 잠들면 된다네.

生不必鬱單州, 自有隨身衣服.
居不必占城國, 午時起子時宿.

鬱單越이나 占城國처럼 이상적인 국가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욕심 없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곳이 이상적인 국가와 다를 바 없다. 그는 저잣거리라는 공간에서 한발 물러나 다른 곳을 꿈꾸었는데 自足,[33] 隱居,[34] 遊覽[35]의 방식을 택한다. "[160] 시끄러운 사람들 어찌 한가한 사람 같으랴! 신선 사는 곳은 분명 잠의 나라에 있으리라. 가난을 면하려면 절약하는 게 상책이고 바쁜 병 고치려면 게으른 게 쉬운 처방이라네.[鬧人爭似閒人, 仙鄕端在睡鄕. 救貧慳爲上策, 醫忙懶是單方.]"라고 하여, 한가함, 잠, 절약, 게으름을 추구하여 저잣거리의 상징인 시끄러움, 낭비, 바쁨과 대비를 이룬다. 저잣거리에 살면서도 淸心寡欲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저잣거리는 평범한 이웃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면서, 이익과 허위가 판치는 공간이었다. 이언진은 저잣거리에 대해 양가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저잣거리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들은 이너서클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슬픔, 그래서 더욱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는 지독한 아픔의 몸부림이 읽히며, 어차피 저잣거리란 자신이 참여할 수 없는 공간이므로 그곳을 단호하게 결별해서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

32) "[148] 上陪玉皇大帝, 下陪卑田乞兒. 一副放達襟懷, 東坡去後爲誰."
33) 그의 시에는 安貧樂道의 삶을 그린 시들이 많다. 이것은 憤世嫉俗을 드러낸 시들과 대비를 이루며 묘한 긴장감을 유발한다. "[5] 治家粧聾做啞, 養兒就乾推濕. 三字訣貧而樂, 甚麼憂到眉睫."
34) "[138] 山人合住山中, 山貌山骨山情. 本來無事可做, 無榮無辱無名."; "[159] 靑城逃入平仲, 壺頭病困伏波. 嗟古人款段馬, 愧後人千里驟."; "[164] 蟹湯亦曰蟹湯, 好隱好狎好禪. 好詩又似古人, 斜川樊川輞川."
35) "[163] 官交熱市交鬧, 高言矜卑言譁. 屈指計遍遊跡, 山家農家漁家."

4. 새로운 시로 세상과 만나다—다시 골목길에서

[85]
천금의 재물도 다 써버리고
구품의 벼슬도 쉽게 버리고서는.
아침에는 고기 얻어먹고 멍하니 우뚝 앉아 명상을 하고
저녁에는 기둥서방의 밥상에서 밥 덜어와 먹으리라.

都用盡千金貲, 易丟去九品官.
朝乞肉唐兀坐, 暮分殘孤老盤.

재물이나 권력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삶에 대한 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3, 4구는 원굉도의 「與龔惟長先生」을 이해해야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36] 원굉도는 이 글에서 삶의 다섯 가지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다섯 번째 즐거움으로 "아침에 저녁을 기약하지 못하여 歌妓의 청루에서 밥을 빌어먹고 기둥서방 밥상의 밥을 나눠 먹는다[朝不謀夕, 托缽歌妓之院, 分餐孤老之盤.]"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는 삶의 현실적인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면서 일견 퇴폐적으로 보일 수 있더라도 삶의 자유를 희구했다.

[86]
좋은 세월 흘러가라 내버려두고
좋은 세상 돌아보려 하지 않았지.
구두쇠도 자린고비도 없었으니
모두들 심성이 홀가분하고 유쾌하였지

擲不收好歲月, 行不顧好世界.

---

36) 袁宏道, 「致龔惟長先生書」, 『袁宏道集箋校』 卷5, 錢伯城 箋校, 上海古籍出版社, 2007. "目極世間之色, 耳極世間之聲, 身極世間之鮮, 口極世間之譚, 一快活也. 堂前列鼎, 堂後度曲, 賓客滿席, 男女交舄, 燭氣熏天, 珠翠委地, 皓魄入帳, 花影流衣, 二快活也. 篋中藏萬卷書, 書皆珍異, 宅畔置一館, 館中約真正同心友十餘人, 人中立一識見極高, 如司馬遷, 羅貫中, 關漢卿者爲主, 分曹部署, 各成一書, 遠文唐宋酸儒之陋, 近完一代未竟之篇, 三快活也. 千金買一舟, 舟中置鼓吹一部, 妓妾數人, 遊閑數人, 泛家浮宅, 不知老之將至, 四快活也. 然人生受用至此, 不及十年, 家資田產蕩盡矣, 然後一身狼狽, 朝不謀夕, 托缽歌妓之院, 分餐孤老之盤, 往來鄉親, 恬不知恥, 五快活也. 士有此一者, 生可無愧, 死可不朽顚."

無有慳人吝人, 大家心性鬆快.

그렇다면 그는 어떠한 모습의 인간형을 원했을까? 禮敎나 따르고 功名이나 추구하는 인간보다는, 세속적인 질서를 초월한 새로운 모습의 인간형을 이상적 모델로 제시한다. 실제의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가공의 인간형은 그의 답답한 심사를 위로하고 慰撫하는 역할을 한다. 그의 시에 나오는 張獸醫와 張姓翁은 그러한 인간형을 대변한다. 張獸醫는 "화가 나면 주먹질하고 기분 나면 거짓말하니 성정이 꾸밈없이 진솔하구나. 책 읽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없으니 수의사 장씨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로다."[37]라고 했고, 張姓翁은 "불가의 삼매를 모르고, 도가의 다섯 가지 신통도 모르지만 대낮에 저잣거리 다녀보아도 장씨 노인만 한 사람 없다네"[38]라고 했다. 이러한 인물들을 관리나 지식인, 종교인보다도 首位에 놓았다. 견고한 사회적 질서 속에서 개인의 노력에 의해 도달할 수 없는 인물형을 추구하기 보다는, 세속적인 가치는 덜하여도 개인의 노력만으로도 현실적으로 도달이 가능한 인물을 꿈꾸었다. 어찌 보면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인물이지만 자기 나름의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위의 시에 나오는 인물은 시간과 공간마저 초월한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꺼릴 것이 없다. 재물 따위에 인색한 사람이 아니었으니 죽음마저도 남들에게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셈이다. 4구에 나오는 이들은 수호전에 등장하는 호걸을 연상케 한다. 마음만 맞는다면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104]
이규 형님의 쌍도끼[兩板斧]로
가짜 이규가 나쁜 일 했지.
이규는 손에 든 박도(朴刀)로 징치하고
강호의 호걸들을 사귀었다네.

37) "[67] 怒厮打喜說謊, 性地實實眞眞. 讀書人無此輩, 張獸醫是好人."
38) "[89] 一不解佛三昧, 二不解仙五通. 白日裏行市街, 百不及張姓翁."

李大哥兩板斧, 假弄來大破綻.
手裡別執朴刀, 結識江湖好漢.

이 시는『수호전』제42회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이규는 자신을 사칭하고 강도짓을 하는 이귀가 노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살려주면서 송강이 주었던 열 냥의 은자를 준다. 가짜 이규(이귀)는 쌍도끼를, 이규는 박도를 가져간다. 나중에 이귀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자신을 죽이려 하자 이규는 이귀를 죽인다. 이동순은 논문에서 이언진 한시와『수호전』의 관련 양상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는데, 여기에 수호전에 사용된 단어를 차용한 용례를 정리해 놓았다. 덧붙여 金聖歎의 水滸傳評批[39]를 읽어야 이언진의 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선 연구에서 김성탄과의 연관성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수호전』의 주인공들은 예법이나 분수를 인정하기보다는 살인과 폭력으로 대처한다.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질서와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도적놈에 지나지 않지만 다른 어떤 소설보다 훨씬 더 진솔한 인간상을 제시한다. 관리나 지식인에 대해서 통렬히 비판하면서, 그 대척점에 있는 도둑들의 인물이나 이야기에 집중했다. 이언진이『수호전』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비록 인간적인 흠결이 있긴 해도 오히려 진솔한 사람들의 모습에 그는 더 끌렸다. 여기에는 허위와 위선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겉으로만 점잔을 빼는 인간들에 대한 혐오가 깔려 있다.

[82]
關漢卿과 같은 재주 가지고 있다면
사마천과 반고, 두보와 이백 같은 재주 가질 필요 없으리.
문장이라면『수호전』같은 책을 읽으면 되지,

39) "[20] 婆娘養兩箇兒, 一般鼻一般眉. 大兒非小兒面, 問其夫亦不知."(『수호전』세 번째 서문); "[36] 風閑戶雨閉戶, 平生友數人聚. 快意事快意話, 無過鬼神打虎."(『수호지』제22회 총비(總批)); "[117] 地獄圖上現相, 稗官書中說法. 前道子後耐菴, 皆證明龍樹學."(『수호전』세 번째 서문); "[129] 在鳥獸爲翬尾, 金漸綠紫漸青. 除是野烏一種, 黑色萬翬同形."(『수호전』제8회 김성탄 총비); "[136] 昔時百丈尊師, 有言寒殺熱殺. 四百病無此病, 文字令人瘧疾."(『수호전』제9회 김성탄 총비); "[141] 話間帶些婆氣, 臉上都是餓文. 冗司若在仙府, 合置這般猥員."(『수호전』제8회 김성탄 총비).

어찌 꼭 『시경』, 『서경』, 『중용』, 『대학』 읽어야 하랴?

才則如關漢卿, 不必遷固甫白.
文則讀水滸傳, 何須詩書庸學.

關漢卿은 잡극 작가인데 그를 사마천과 반고 등의 역사가와, 두보 이백과 같은 시인에 비견하고, 수호전은 소설임에도 六經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러한 시선은 李贄가 「童心說」에서 "육경과 논어, 맹자는 모두 도학자가 내세우는 구실이고 거짓된 무리들의 소굴[道學之口實, 假人之淵藪]"이라고 했던 것과, 오직 『수호전』과 『서상기』가 "세상의 뛰어난 문장[天下之至文]"이라고 언급한 것, 그리고 김성탄이 「讀第五才子書法」에서 "수호전이 사기보다 뛰어나다[某嘗道水滸勝似史記]"라고 언급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언진이 희곡과 소설 같은 속문학을 높이 평가한 점은 새로운 문학에 대한 열망에 다름 아니다.

이언진의 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독서 이력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王世貞, 袁宏道, 王思任,[40] 錢謙益,[41] 郭子章,[42] 虞行圓, 李維禎 등의 글을 읽었다.[43] 왕세정, 원굉도와의 연관성은 이미 검토된 바 있지만 나머지 문인들과의 연관성은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이 없다.[44] 이언진의 시를 정밀하게 읽어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들과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것이 필수적이며, 아직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독해해 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언진의 시는 시로 쓴 독후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40) "[72] 城一環步不廣, 瓦一壓頭長低. 只除日月燈光, 眼睜睜看箇妻."(王思任, 「游喚序」)
41) "[11] 塵容俗狀滿坐, 其賓張三李四. 貿販歌哭聒耳, 其隣東井西市."(「王德操詩集序」, 『牧齋初學集』 卷33; 「病榻消寒雜詠四十六首」 서문, 『牧齋有學集』 卷13.); "[73] 巷深如入甕裏, 屋低不及帽簷. 筆硯雜置烟爨, 書卷夾註米鹽."(「李梅公唱和初集序」, 『牧齋有學集』 卷20.); "[152] 焚其衣舞其灰, 移家入農家籍. 唯著作不可廢, 寫牛經抄兎冊."(「陳鴻箇詩集敍」, 『牧齋初學集』 卷32.)
42) 곽자장은 이용휴도 언급한 적이 있다. 李用休, 「送趙院正徽緖隨謝恩使赴燕」 3首, 『敝帚集』. "太和司馬郭青螺, 文比諸公變化多. 可惜華人猶失鑑, 十家同選獨遺他."
43) 井敏卿, 『松庵筆語』. "雲我曰, 僕嗜韓蘇如菖歜. 然博識通辨文士急務, 何必膠守一二人? 韓蘇萬古一人, 王其入室哉. 吾好韓蘇, 故好王氏. 又好王氏, 故好袁中郎・王思任・錢謙益・郭子章・虞行圓・李本寧諸人."
44) 정민, 「이언진과 일본문사의 왕세정 관련 필담」, 『동아시아 문화연구』 제49집,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김동준, 앞의 글; 이동순, 앞의 글이 있다.

이언진이 보여주는 문학적인 시도는 스승인 이용휴가 지나온 길과 매우 유사하다. 明淸 서적에 대한 熱讀, 自我에 대한 관심, 새로운 인식의 시도, 다양한 시적 실험 등이 그것이다. 이용휴가 한시의 파격적 구성과 실험성을 보여 주었다면 이언진 역시 6언시와 백화시를 지어 기존의 한시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 이용휴의 산문에는 명청 서적의 체험이 숨어 있는데, 산문 속에 때로는 인용을 언급하지 않고 명청 서적의 구절을 사용하고 있다. 이언진의 「호동거실」 역시 한시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고(典故)보다는 명청 서적의 도움 없이 오독이나 해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정도이다.

이용휴는 「我菴記」, 「還我箴」, 「隨廬記」, 「贈鄭在中」 등 유독 자아에 대한 글을 많이 남겼다. 이언진의 시 역시 치열한 자아 찾기의 여정이다. 그중에서도 "눈동자가 어둡고 눈동자가 어두우니, 한 개뿐인 금비(金篦)에 병이 남은 것 없네. 두 눈은 둥근 달과 같고 둥근 구리거울과 같아 사람을 안 보려 해도 절로 저들을 보네.[眸子昏眸子昏, 只一篦病無餘. 左如月右如鏡, 莫看人自看渠.]"라는 [57]번 시 속의 금비는 이용휴의 「贈鄭在中」에 나오는 금비(金篦)를 연상케 하고, "갑자기 생각이 났다, 나의 눈이 다른 사람의 눈에 가 붙어 있음을. 눈에도 정신이 있다면 분명 억울하다 외치리니, 내 눈을 찾고 있으니, 눈이여 내 몸에 돌아오라.[猛可裡想起來, 我有眼寄在人. 眼有神必叫冤, 尋我眼還我身.]고 한 [45]번 시는 이용휴의 「還我箴」을 떠올리게 한다.

이용휴는 문학적인 전범을 부정하려 애썼다. 「李華國遺草序」에서 唐詩만을 도습하는 문단에 대해 비판했고, 「題宋元詩鈔」에서는 唐宋詩만을 높이는 풍조에 반하여 元詩의 가치를 再考했다. 또 「題族孫光國詩卷」에서는 "옛날에는 옛것에 합치되는 것을 취해 妙하다고 하였으나, 이제는 옛것을 벗어나는 것을 취하여 신묘하게 여기는 것이다.[昔取合古爲妙, 今取離古爲神]"라고 하며 전범의 부정을 통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다. 「松穆館集序」에서는 "從己起見"을, 「槐谷遺稿序」에서는 "信己師心"을 강조했다.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역시 바로 자신[己]이다. 혜환은 "모의해서 지은 시가 어찌 시인가?[模擬爲詩豈是詩?]"[45]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남을 흉내 낸 시는 시가 아니라는 말이다.[46]

이언진은 문학을 하는 이들이 옛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쥐구멍[鼠穴]으로 들어가려고만 애를 쓰지, 지금 사람들이 만든 토끼 길[兎徑]로는 가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47] 尊古貶今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여러 번 드러내면서[48] 투식을 뒤엎고 습관을 벗어난 틀에 박히지 않는 시를 쓰고 싶다며 새 문학에 대한 열망을 이야기하고 있다.[49] 이용휴의 언명과 궤를 같이 한다.

[157]
어리석어도 죽고 현명해도 죽으니
흙은 누구라 해서 가리지 않네.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책 몇 권이
나는 나의 천년 뒤를 증명하리라.

痴獃朽聰明朽, 土不揀某某某.
兎園冊若干卷, 吾證吾千載後.

누구나 죽음 앞에 공평하지만 자신의 저술은 不朽의 글이 되리라는 자신감을 드러낸다. 아무도 하지 않은 문학을 했지만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문인은 되고 싶지 않았다. 문인으로서의 삶만이 자신을 가장 자신답게 만드는 길이며, 남에게 언젠가는 기억될 일이라 자신했다. 현세의 불행은 불후의 저술이 상쇄해 줄 것이다. 문인과 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오연하게 간직하고 있었다.[50] 보잘것없는 동물들의 울음소리와는 다른 사자의 울음소리를 이야기하고,[51] 아무도 보지 않아 생경해서 놀라운 동물인 낙타를 이야기한 것[52]은 지금껏 아무도 보지 못했던 글을 쓰겠다는 다짐이나 다를 바 없다.

---

45) 李用休, 「聞德順 與幼選 談詩 老人 動觀獵之喜 作近體詩 寄德順 兼示幼選」, 『惠寰居士詩集』.
46) 박동욱, 「惠寰 李用休의 文學 硏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7.
47) "[47] 性格任爾乖覺, 言語任爾靈警. 皆入古人鼠穴, 不出今人兎徑."
48) "[78] 食經夜便嫌敗, 衣經歲便嫌舊. 文士家爛熟套, 漢唐來那不腐."
49) "[33] 詩不套畵不格, 翻窠臼脫蹊徑. 不行前聖行處, 方做後來眞聖."
50) "[156] 惟有文人善病, 惟有詩人解愁. 都搶上一身上, 我不與人不求."
51) "[147] 鼠言空鳥言卽, 牛呼牟駝呼喝. 大獅子一聲吼, 天上徹地下徹."
52) "[98] 鷄戴勝高似幘, 牛垂胡大如袋. 家常物百不奇, 大驚怪橐駝背."

5. 결론

그는 홀로 先覺한 자로서[53] 세계에 대한 비극적인 절망[54]을 말한다. 그는 자신의 방에 자신을 가두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분노와 절망을 누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참선을 하며 鼻觀, 靜坐의 방법을 사용해 보고, 여러 종교에서 구원의 방법을 찾았지만 그나마 불교가 약간의 위안으로 다가왔을 뿐, 내면의 울분을 다 털어내지는 못했다. 가족과 신분적 한계, 앓고 있던 병 등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자화상을 스스로 그렸다가 지우는 일뿐이었다. 자신의 능력에 비례해 절망의 깊이는 커져만 갔다.

저잣거리로 상징되는 공간은 그에게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곳이다. 그곳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모든 욕망의 추악한 면을 그리며 매서운 어조로 질타했다. 벼슬아치와 지식인은 그 중심에 있다. 그들은 그러한 공간의 주인공이며 이언진은 거기에서 배제된 인물이다. 그들은 죽어서도 기억되었지만 이언진은 살아서도 기억되지 못 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自足과 隱居, 遊覽이었다. 그들과 공간을 달리함으로써 스스로 自儆를 간직했다.

그는 새로운 인간상을 만들기에 골몰했다. 張獸醫와 張姓翁, 수호전의 인물상, 고대의 협객[55] 등을 결합하여 새롭게 이상적인 인간상을 창조했다. 기존의 유가 질서 속에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진솔한 인간애를 보여주는 인물들이었다. 사회를 향한 모든 출구는 막혀 있었다. 그는 골목길을 통해 저잣거리로 나와 당당한 자신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다. 시를 통해서 천년 뒤에도 썩지 않는 책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그가 바라는 일이다. 어쩌면 그가 책을 쓰는 것은 그 자신의 말처럼 허공에 경전을 쓰는 일과 다를 바 없다.[56] 허공에 쓰는 것이기에 존재하지 않지만 영원히 지워지지도 않는다.

물론 그의 고민이 대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 개인의 구원

53) “[124] 猛一喝如雷吼, 日過午胡不起. 讚歎聲歌唄聲, 凡夫僧睡夢裏.”
54) “[169] 此世界大牢獄, 沒寸木可梯身. 八十年皆殺之, 無萬人無一人.”
55) “[65] 話美人劒客事, 一賡殺一嚇殺. 游高山邃壑時, 不險絶不奇絶.”
56) “[107] 殷楊州咄咄法, 空裡書一卷經. 水火劫不能滅, 何以故本無形.”

에 중심이 있었지, 세상을 바꾸는 데에는 커다란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중인으로서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반권위, 체재 비판, 본질과 실제 추구, 창조적 시정신이 폄하될 수는 없다. 그는 조선 시대의 외로운 늑대[Lone Wolf] 같은 시인이다. 어떤 조직이나 이념에 의해 움직이지 않지만 늘 반역을 꿈꾸던 외로운 개인이었다.

▮ 참고문헌

李彦瑱, 『松穆館燼餘稿』.
李用休, 『歗敝集』.
_____, 『惠寰居士詩集』.
錢謙益, 『牧齋有學集』.
_____, 『牧齋初學集』.
井敏卿, 『松庵筆語』.

김동준, 「이언진 한시의 실험성과 「동호거실」」, 『한국한문학연구』 제39집, 한국한문학회, 2007, 261-292면.
김명호, 「李彦瑱과 『虞裳傳』」, 『한국문화』 제70호,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5, 161-194면.
박동욱, 「惠寰 李用休의 文學 硏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7.
박희병, 『저항과 아만—〈호동거실〉 평설』, 돌베개, 2009.
이동순, 「이언진 문학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0.

袁宏道, 錢伯城 箋校, 『袁宏道集箋校』, 上海古籍出版社, 2007.

【Abstract】

The shape of the treasonous individual in the late Joseon period—Lee Eonjin's Hodonggeosil—

Pak, Dong-Uk*

He speaks of tragic despair to the world as a person who is preoccupied. He did not stop attempting to put himself in his room and press his anger and despair in it. But it does not seem to be successful. I was able to find a way of salvation in many religions, but Buddhism came to me with a little comfort, and I could not say all my inner agony. His family, limitations of status, illness and illness constantly tormented him.

The space symbolized by the lowland is a place where I want to go to him but can not go. It was a horny tone, drawing the ugly side of all the desires around it. It is at the center of patriotism and intellectuals. They are the protagonists of such a space and he is the person excluded from it. They were remembered even though he died, but he was not remembered even though he was alive. So the way he chose was self-sufficiency, obligation, and excursion. By keeping their space with them, they kept Zao themselves.

He struggled to create a new human image. He created a new ideal human image by combining the longevity of medicine, Zhang Sung Wang, the portrait of the patron saint, and the ancient crowd. It was the people who showed genuine humanity although they could not be recognized in the existing oil order. All outlets to society were blocked. He wanted to make his own space in the alleyway through the lowlands. It is indeed his desire to make a book that does not rot after a thousand years through poetry.

Of course, his anxieties did not extend to major social problems. It was centered on the salvation of the individual, and there was no sign of a great disturbance in changing the world. But his anti-authority, criticism of stay, essence and real pursuit,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Humanities, Hanyang University.

and creative corrective god can not be disparaged.

Keywords: Lee Eon-Jin, Hodonggeosil, treason, market, Shuihuzhuan.

접수일: 2018.12.31. || 심사일: 2019.01.09. || 게재확정일: 2019.02.01.